

고흥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모집

내달 3일까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 52명 모집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순천대서 교육 이후 고흥서 실습

전남도와 고흥군은 미래 선진 농업을 이끌어갈 스마트팜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7월 3일까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52명을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의 청년이며,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취업 및 창업에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20개월 과정이며, 오는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순천대서 이론교육과 교육형 실습이 먼저 진행되고, 이후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경영형

실습을 통해 스마트팜 온실을 직접 경영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교육 수강료는 무료이고 교육 기간 동안 숙식도 전액 지원되며, 국내외 우수 현장 전문가의 영농 기술지도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교육생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 후 성적 우수자에게 혁신

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우선권이 주어지고,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등 교육생에 주어지는 혜택이 많다.

고흥군 관계자는 "향후 관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준공되면 1인당 100평 이상의 온실을 직접 경영해 볼 수 있어, 농업에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좋

은 기회가 될 것이다" 며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팜 코리아 홈페이지(www.smartfarmkorea.net)

공지사항 교육생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양시, 외국인 친화도시 조성 위한 방안 마련

지역 내 외국인 관련 민간단체·기관 간담회 개최



광양시는 최근 외국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내 외국인 관련 민간단체·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외국인 관련 민간단체·기관 담당자들과 시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친화도시 분야별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참석자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분야별 사업은 △외국어 인프라 △생활지원 프로그램 △사회융합 프로그램 △봉사참여 기회제공 △시민의식 개선 총 5개이다.

시는 국제 교류도시 확대와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고용인력 증가로 범부

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수는 1,687명(2020. 3월 기준)에 달하나 관련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외국인 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해 거주 외국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외국인 관광객과 젊은 인구 유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글로벌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정민석 철강항만과장은 "우리는 현재 총 42개국 1,687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다. 특히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근로자는 광양시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여수시 '학동상가 주차난 해결'

학동 1·3 공영주차장 공사 착수...지상3층·353면 규모

여수시가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는 학동 상가에 주차전용 건축물(주차타워)을 신축해 주차공간 확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학동1, 학동3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해 상가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할 계획이다.

이번 주차타워 신축으로 196면이 증가해 주차면적은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수자원공사 전면에 위치한 학동1 공영주차장 내 건축물은 지상 3층, 연면적 7,348㎡, 주차면수 245면 규모로 총사업비 73억 원을 들여 추진한다.

여천등기소 뒤편의 학동3 공영주차장 내 건축물은 지상 3층 연면적 3,534㎡, 주차면수 108면 규모로 36억 원을 들여 추진하며 두 건물 모두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보성군,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기후변화 적극 대응... 미래 농업 등 발전 전략 모색

보성군은 이상 기온,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막고, 분야별 대응 방안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일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2020년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 계획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제1차(2016~2020년) 적응 대책의 성과 분석, 보성군의 기후 현황 및 향후

기후 전망, 부문별 취약성 평가 등 기후변화 적응 여건 분석을 통해 제2차(2021~2025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이 제시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최병만 부군수를 비롯한 관련 부서장과 실무진은 폭염, 열대야 등으로 수온 상승에 따른 해양자원 변화와 온난화에 따른 농업 작물 선택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군은 이번 발표회를 토대로 실



무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차(2021~2025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보성군의 위해성과 취약성을 분석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는 기회

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세부 시행 계획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미래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 군 차원의 추진 전략 및 건강, 재난/재해, 물 관리, 농축산, 해양수산, 산림/생태계, 적응기반/에너지 등 분야별로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9월경에 완료할 계획이

보성=김덕순 기자

캘리로 이야기하는 순천 브랜드 홍보전

순천시청 현관에는 오는 26일까지 5일 동안 '캘리로 이야기하는 생태도시 순천, 브랜드 전시 홍보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홍보전을 통해 전시된 작품은 지역내 캘리그래피를 배우고 싶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서예가이자 시민대학 강사로 활동하는 최민숙 선생의 하유글씨 문화연구실과 소속 작가 5명이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캘리로 말한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다양한 서체의 캘리 작품 4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작품 속에는 순천시의 비전과 목표, 신년사를 비롯한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등 주요 관광지와의 축제, 행사 등이 담겨져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